

2028 대입 로드맵 : 혼돈의 고1 선택과목



지 상 범 의

입시 토크

2028학년도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학부모에게 과목 선택은 이제 단순한 교육과정 이수가 아닌 입시의 핵심 전략이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학생들은 필수 학점 외에 90학점을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과목으로 채워야 하는 중대한 책임을 지게 됐다.

주요 대학들은 학과별 권장 이수 과목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수시뿐 아니라 정시에서도 교과 이수 여부를 반영하는 추세다. 단순히 높은 등급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전공 학습의 위계성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 필수적이며, 이는 곧 대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진학 희망 대학별 권장 과목 확인은 기본이다.

전공 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반·진로 선택 과목의 충실한 이수는 대학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자연계열 학생은 특히 수학·과학에서 위계성을 확보해야 한다. 미적분Ⅱ는 공학 및 자연과학 전공

의 기초로, 주요 대학들이 사실상 필수로 권장하고 있다. 기하도 공학계열 지원 시 수학적 깊이를 위해 이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실제 서울대, 고려대, 중앙대 등은 미적분Ⅱ와 기하를 명시적 권장 과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과학은 전공 따라 심화 이수가 필수다. 의예과·약학과 등 메디컬 계열은 미적분Ⅱ 이수과 함께 물리·화학의 일반 선택 과목 이수가 필요하며, 공학계열은 역학 중심 물리, 생명계열은 세포·물질대사 관련 생명과학 과목을 중심으로 선택해야 한다. 컴퓨터·전자전기 계열은 인공지능 수학, 기술·정보 교과 등을 통해 전문성을 학생부에 나타내야 한다.

인문·사회계열은 선택 자유가 큰 만큼, 전공 연계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상경·사회과학 계열은 데이터 분석 능력을 증명할 수 있도록 확률과 통계, 실용 통계 등 수학 활용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진로 선택에서 과학 이수는 필수는 아니나, 경제 수학, 수학 과제 탐구 등을 활용해 이과 생과의 경쟁 부담을 줄이고 수학적 역량을 보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탐구 심화를 위해서는 사회 문제 탐구, 윤리 문제 탐구, 인공지능(AI) 윤리, 기후

변화 등 복합 이슈를 다룬 융합 선택 과목을 통해 전공과의 연결성을 보여 주는 활동이 중요하다. 이는 절대평가 과목의 성취와 학업 과정의 질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이자, 융합 사고력을 증명하는 수단이다. 국어·영어 진로 선택 과목 이수도 기초 소양 확보를 위해 빠질 수 없다.

학점 미달 시 보충지도 등의 유연성이 있지만, 이는 최후의 안전망일 뿐 전략이 될 수 없다. 대학들은 개설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공식화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정규 이수를 통한 성취가 최우선이다.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은 교육청의 공동 교육과정을 통해 이수할 수 있다. 이 과목들은 석차 등급 없이 절대평가로 처리되므로, 성적 부담 없이 세특 중심의 탐구 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 특히 사회·과학 융합 선택 과목은 부족한 전문 과목을 보완하거나 흥미 분야를 확장하는 전략적 기회다.

결국, 고1 학생은 일반·진로 선택으로 필수 역량을 확보하고, 융합 선택으로 탐구 심화를 증명해야 한다. 과목 선택 실패는 곧 대입 실패로 이어진다. 치밀한 로드맵만이 불확실한 입시 환경을 돌파하는 길이다.

/JBS진로진학연구소장

실손24, ‘빨리’ 보다 ‘명확히’



김 지 수 첩

김 주 형
(금융부)

실손 청구 전산화 ‘실손24’ 2단계가 지난 25일 문을 열었다. 병원 청구 방문·서류 발급 없이도 청구가 가능하니 ‘원터치 편의’만 보면 혁신이다. 하지만 현장의 체감은 다르다. 버튼은 생겼지만, 회로는 아직 험잡다.

10월 21일 기준 실손24 연계 요양기관은 1만920곳으로 전체의 10.4%에 그친다. 단계별로 보면 1단계 대상인 병원·보건소는 54.8%로 절반을 넘겼지만 2단계의 핵심인 의원·약국은 6.9%(6630곳)다. ‘확대 시행’과 ‘낮은 참여’가 동시에 존재한다.

제도의 취지와 한계는 법 문구에 담겨

있다. 법은 ‘의료기관이 환자 요청 시 청구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게 한다’고 정한다. 강제 처벌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표준을 깔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모델이다. 전송대행기관은 보험계발원이 맡는다. 표준과 운영 주체는 정해졌지만 현장 적용의 마찰면을 줄이는 설계는 아직 진행형이다.

의료계의 반론은 ‘편의’가 아니라 ‘책임’의 언어로 나온다. 개인정보 보호, EMR(전자의료기록) 연동·유지보수 비용, 업무 부담 등 누가, 어디까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묻는다. 참여율이 낮은 이유가 ‘비협조’만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정책의 선의와 현장의 현실 사이에 남은 간극을 메우지 못하면 전산화는 신뢰를 갉아먹는 규범이 될 수 있다.

해법은 기술이 아니라 운영의 규칙을 정비하는 일이다. 요양기관·EMR업체·보

험사가 비용 분담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합의할 필요가 있다. 표준 API와 인증·접근권 관리(누가 어떤 정보에 접근하는지)는 규칙으로 공개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이용 편의는 네이버·토스 등 플랫폼 연계로 높일 수 있지만, 인센티브는 정보보호와 분쟁 예방 원칙을 전제로 신중한 설계가 요구된다. ‘빨리’보다 ‘명확히’가 먼저다.

실손 전산화는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느냐의 힘겨루기가 아니다. 소비자 편의, 진료 현장의 안전, 데이터 주권, 비용의 공정 분담이 동시에 맞물려야 굴러간다.

당국은 11월부터 네이버·토스 등 대형 플랫폼에서 실손24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예고했다. 다만 속도보다 신뢰가 먼저다. 버튼은 이미 눌렸다. 이제는 회로의 신뢰를 설계할 차례다.

/gh471@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0월 30일 (음 9월 10일) <http://www.saju4000.com>



취

36년생 무덤에서 잠을 자보는 마음으로 두려워 말고 경건히. 48년생 지치기 쉬운 날이니 휴식이 필요. 60년생 동료 간에 서로 양보를. 72년생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알아차리도록. 84년생 가족이 흠아지기보다 기회를 찾아보자.



소

37년생 약속이 아침부터 발생. 49년생 사람을 차별 질 수는 없으나 미운 것은 밟다. 61년생 진로 수정은 신중하게 해서 다시 돌아오는 민망함이 없도록. 73년생 백일작정기도를 신창. 85년생 상부상조하는 것이 이익을 가져온다.



호랑이

38년생 선봉에 나서는 것은 지타를 받을 수 있으니 겸손히. 50년생 노력은 복덕의 근간. 62년생 동료와 화목해야 능률도 오름. 74년생 재주를 믿고 교만한 직원이 선동할 것이니 주의. 86년생 남쪽에서 친구가 찾아오니 기쁘다.



토끼

39년생 정상으로 오르는 것은 그동안의 노력 결실. 51년생 시작도 중요하고 마무리도 중요하다. 63년생 이기적인 마음을 접도록. 75년생 젊은 시절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니. 87년생 돌아가신 분을 위한 산소에 가서는 경건하도록.



용

40년생 운이 호전되어 금전과 사랑이 따른다. 52년생 외출 때 차량 점검. 64년생 일시적인 감정 표출로 후회할 수 있으니 말조심. 76년생 시기심을 버리면 집에 복이 온다. 88년생 발전이 느리니 답답하나 현상 유지가 오늘은 최선이다.



뱀

41년생 먹을 복이 있으니 최상이다. 53년생 무엇이든 지나치면 좋은 것이 없다. 65년생 취직으로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평화로운 날. 77년생 낮에 음주가 웬 말인가. 89년생 전해오는 집안 풍습에는 액운을 막아주는 효험이 있다.



말

42년생 외나무다리에서 원수를 만나는 격. 54년생 자책하지 말고 스스로 응원하라. 66년생 휴가를 얻어 여행을 간다. 78년생 한번 성한 것은 반드시 쇠할 때가오니 평소 겸손 미덕을. 90년생 이해를 바라지 말고 상대를 설득하도록.



양

43년생 시작이 좋으니 마무리도 산뜻. 55년생 좋은 말로 속삭이는 투자를 경계. 67년생 직장에서 상을 받으니 온 마음이 날아갈 듯 낙낙하다. 79년생 본성 나쁜 직원의 도둑 수가 있을 것. 91년생 과유불급이니 지나친 운동을 삼가라.



원숭이

44년생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물러올 때도 있다. 56년생 부부간에 대화 중 의견대립이 생길 수. 68년생 이사 준비로 바쁘는데 이웃사촌이 방문하여 복장. 80년생 스트레스 비만에 주의하자. 92년생 자격증시험에 합격하여 너무나 기쁘다.



닭

45년생 세상살이 보는 눈을 조금만 달리해보면 축복이다. 57년생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 69년생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포장도 깨끗하게. 81년생 남의 말에 좌우되지 말고 주관을. 93년생 많은 시간의 인생은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



개

46년생 다른 사람에게 눈길 주지 말고 성실히. 58년생 주어진 상황에서 즐거운 일을 찾자. 70년생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놓칠 수 있으니 신중. 82년생 지금 늦지 않았으니 실비보험을 들도록. 94년생 기다리던 것일수록 잘 살펴보도록.



돼지

47년생 자식이 좋은 인연으로 새로운 희망이 생긴다. 59년생 3시 지나서 운전은 양보하면서 하자. 71년생 힘찬 운이 도래했으니 하고 싶은 일을 해보자. 83년생 주변 좀 도둑을 조심히 해라. 95년생 마음의 평화는 바라보는 시선대로이다.



김상회의四季

운조루, 고택명당

전라남도 구례에 있는 운조루는 오랫동안 명당으로 불린 고택이다. 조선시대 양반 가문의 고택인 이 집은 수백 년의 세월을 이어온 종가이다. 아름다운 풍경으로도 유명해서 나들이객이 많이 방문하지만 명당의 모습이 어떠한지 궁금해서 찾는 사람들도 많다. 풍수지리 이론이 잘 반영된 운조루의 터는 명당과 혈자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볼 수 있는 곳이다. 풍수지리에서 명당은 단순히 경치가 좋은 자리가 아니다. 산과 물 바람과 햇빛이 조화롭게 어울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과 복을 지켜주는 자리다. 이런 자리에 집이나 무덤을 지으면 후손이 번성하고 재물이 모인다. 명당의 핵심은 기가 머문다는 것이다. 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숨결처럼 흐른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인 혈자리는 명당 안에서도 기운이 모이는 핵심 지점이다. 사람의 몸에서 피가 모여 힘을 내는 심장과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집을 짓거나 무덤을 쓸 때 혈자리를 잘 잡으면 기운이 퍼져나가 집안이 번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어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 운조루는 이렇게 강한 혈자리에 세워졌다고 전해진다. 병풍 같은 산줄기가 운조루가 있는 마을을 감싸 안는 형상이고 앞쪽으로는 맑은 섬진강 물줄기가 완만하게 흐른다. 뒤로는 산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앞으로는 시야가 탁 트여 있다. 이를 배산임수라고 부르는 데 가장 이상적인 집터 조건 중 하나이며 특별한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 터의 중심부에 혈자리가 있어 집 전체가 마치 기운의 중심에 앉아 있는 듯한 구조를 지녔다고 한다. 운조루는 안채와 사랑채가 마당을 중심으로 서로를 감싸는 구조로 명당의 기운과 주변에 배운 공덕의 힘이 작용한 것으로 봐도 좋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8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885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